

열반과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습니다. 만약 진정한 종교와 학문이 존재했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우리 인생들이 무지의 어둠 속을 헤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확고한 정신적 지도도 없었고 당면해 있는 인생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타당성 있는 진리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는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들로 하여금 이처럼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가” 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 단체와 무수히 많은 박사님들이 있건만 그러한 의문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는 참 종교가 없었으며 참 학문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윤회는 업보, 죄 등이 피에 의해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윤회”는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의 업보에 따라 짐승이나 다른 사람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생로병사를 거듭하며 살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열핏 생각하면 윤회설이 타당성있게 여겨지지만 윤회설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윤회설이 옳은 것이 되려면 죽는 생물과 다시 태어나는 생물의 수가 같아야 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나 그밖의 생물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윤회설은 잘못된 낭설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의 후손은 남습니다. 후손 속에 그의 피가 유전되어 있으므로 그 후손 속에 그의 영혼이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은 죽어도 그 후손들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보도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윤회는 “피의 윤회”입니다.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면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이 “열반에 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생은 곧 그 조상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후손이 벌 받고 조상이 쌓은 덕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피의



미륵불 초회성님

윤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친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해도 조카와 같은 가까운 친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여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을 “열반에 들었다”고 하며 또 “생로병사를 해탈했다”라고도 합니다.

불교도들이 “성불합시다”하는 합장인사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미륵불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열반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도통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

법화경 등의 불경을 살펴보면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완전한 도통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부처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부처님이며 만물 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 만물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성경에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기독교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그릇되게 받아들여 인간을 단지 한층의 진흙덩어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성불, 성령회복, 원시반본하여 신불(神佛)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6천 년 전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케 한 바로 그 마귀이며 “사망권세 잡은 마귀”로서 영생했던 하나님을 오늘날 100세도 못살고 죽는 인간으로 전락시킨 바로 그 원수마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나니라”(눅17:21)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2:16)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수많은 구절들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중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니 악신인 공중신이 인간을 복되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 인간의 몸이 신의 성전이 힘이 분명할진데 그릇된 교리에 몰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닦지 못하고 교회나 절들을 찾아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간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처님, 하나님이 계시므로 부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간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공중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며 당연히 그곳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각자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처님, 하나님이 되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극락,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국토, 예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미륵불·이긴자의 이름으로 부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긴자가 출현하여 자신 속의 사망의 요소를 100% 죽이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의 맹점을 널리 알리고 참 학문, 참 종교를 온 인류에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는 미래에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구하신다고 하는 불교의 미륵불로서 잘못된 종교와 학문을 고쳐서 바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영생의 학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고 한 성경 구절의 사실이 이긴자가 있는 “동방의 땅 끝 모퉁이” 즉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니 죽지 않고 저 높은 창공을 새처럼 훨훨 날고 싶으니 날아가는 자유, 이러한 자유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난 후 영원히 즐거워 할 이 피안의 분향이 지금 승리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생은 곧 그 조상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후손이 벌 받고 조상이 쌓은 덕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피의 윤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없다고 해도 조카와 같은 가까운 친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여 부처(하나님)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을 ‘열반에 들었다’고 하며 또 ‘생로병사를 해탈했다’라고도 합니다.

초회성님의 발자취

빨갱이들의 암살 음모를 피해 철조망을 넘다

수용소에서 빨갱이들의 처형의 계획을 미리 알려 주는 이가 있어 죽음에서 벗어나

이념과 사상이 다른 빨갱이들과 하루 하루의 수용소 생활은 초조와 불안 속에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조동지! 조동지!” 하고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 그가 잠깐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잠시 후 조동지를 죽이기로 되어 있으니, 지금 속히 몸을 피하시오!” 하고 목직 한 이복 말씨로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으나 “그건 알 필요 없소. 다만 내가 죽을 상황에 처했었을 때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났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니 생각을 고쳐먹고 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오시라오”라고 하며, 환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심상치 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옆의 천막으로 피해 숨어 있으니, 잠시 후, “큭” 하며 큰 돌을 가지고 사람 머리를 짓밟아 죽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

다. 이 사람 바로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대신 억울하게 희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수용소 내에서도 다 빨갱이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들어온 우익청년들도 많았다. 빨갱이들은 이를 파악하고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웠고, 대동군 초대 치안대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사람이 제1차로 숙청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수용소 대장이라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서서히 세력을 키워서 암암리에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부터 이 사람은 얼굴에 다 검정 칠을 하고 길게 내려오는 영국군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숨어서 다녔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하여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면 노출이 될까봐 밥을 타러 가지도 못하였다. 이런 사실은 김포 고향 친구에게 알렸고, 대신 친구가 타온 밥을 들이서 나눠 먹곤 하였다. 친구가 타온 밥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끼 때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계속 먹지 못하고 굶기도 하며 지냈다. 그러지러 시간이 흘렀는데 일주일 만에 마침내 빨갱이 골수분자들에게 다시 들켜고 말았다.



그리하여 좌익청년들에게 잡혀서 빨갱이 본부로 끌려갔다. 그들은 빨갱이 대장에게 “조희성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어 잡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빨갱이 대장은 “그 높은 독안에 든 쥐새끼니까 그곳에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빨리 이쪽으로 집합해!”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대장의 명령에 따라 빨갱이들은 이 사람을 내버려두고 돌아서서 건물 반대쪽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음성이며칠 전 밤중에 죽

음을 피하게 해 준 음성인데다가 현재 취하는 행동도 뭔가 이상하게 여겨졌다. 분명 도망가려는 신호로 느껴지는 고로,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쳤다. 이번엔 불잡하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포로수용소 울타리를 향해 달려가 쳐놓은 철조망을 하나 기어올랐다. 두 개의 철조망 가운데 하나를 넘고 또 바깥 철조망을 기어 올라갈 무렵 빨갱이들이 쫓아와 돌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 많은 돌들이 사정없이 날아오면서 몸에 맞기도 하였으나 고통을 느낄 틈이 없었다.

환급회 철조망 폭대기를 막 넘어 한 쪽 발을 바깥으로 내미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타격하는 돌이 있었다.

그 돌을 정통으로 맞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철조망 밖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철조망 밖에 파놓은 배수로 안쪽으로 떨어졌다. 빨갱이들이 수없이 돌맹이를 던져도 이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61수용소에서 혁명을 주도하다

철조망에서 떨어진 후, 미군 응급처에 실려 야전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와 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옆에는 김아열 선교사가 앉아 있었다. 지금도 그때 당시 맞았던 뒤통수에 흉터가 크게 있는데 바로 그 61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할 때 돌에 맞은 상처이다.

김아열 선교사는 전남 광주 사람으로 포로수용소를 출입하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당시 이 사람은 김아열 선교사를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에게 우익 청년 200명을 지원해 주

면 빨갱이를 다 색출해 빨갱이들이 없는 포로수용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 상처를 회복한 다음 김아열 선교사의 협조로 200여 명의 우익 청년을 대동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 61수용소 내에서 좌익에 몰든 빨갱이 골수분자들을 색출, 별도로 수용하고 반공주의 일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혁명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람이 선두에 서서 먼저 61수용소를 완전히 뒤집어엎어, 빨갱이 깃발을 내리고 대신 태극기를 달았다. 61포로수용소 전 인원을 집합시켜 놓고, 악질 빨갱이들을 직접 색출하여 수용소 안의 영창에 가두었다. 더 이상 빨갱이들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정화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61수용소에서 사람들의 사상과 신상을 이미 파악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 여세를 몰아 62수용소에 들어가 똑같이 뒤집어엎으려 하였으나, 빨갱이들의 세력이 너무 강한데다 미군 장성 돛드 준장이 빨갱이들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당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